

2022-2023 아르코 <작가 조사-연구-비평>

박경효 작가 작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비 조사구평

주요 이력

부산민예총 회원, 부산 작가회의 회원, 부산 아동 문학회 회원
개인전 9회 | 단체전 다수
2010년~2015년 또따또가 입주작가
2008년 '입이 똥꼬에게', 2009년 '구렁덩덩 새신랑' 그림책 출간 | 출판사: 비룡소

전시 및 공연 등 작품 활동 경력

2023년 1월 갤러리 쌈 '탈·꿈·먹_쌈' (이석금, 곽영화, 박경효 3인전)
2022년 10월 영화의전당 비프힐 '선線을 넘다' 부산민예총 영호남대동제 전시
2022년 5월 5.18민주광장 '호명 呼名 5.18 거리미술전'
2021년 5.6.7월 – '삼풍백화전' 광주. 부산. 서울
2021년 6월 달리갤러리 '살림의터전 생명의울림展' 부산민예총 생명축전 전시
2021년 5월 광주 생각상자 갤러리 '부마에서 광주로'
2020년 8월 민중미술2020 '민중미술가 열전' 부산민주공원.
2020년 5월 5.18 4040 포스터전. 갤러리 생각상자.
2019년 8월 민중미술2019 '호흡에서 함성으로'전시 참여.
2019년 5월 '그 뭐를 찾아서' 부산민예총 생명축전 전시.
2017년 10월 부산 원도심 거리 춤 축전. '유체도시 만들기' 페인팅 퍼포먼스 출연.
2017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38주년 기념전시. '극장. 파노라마. 광장'전.
2017년 8월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놀다 가련다' 샌드 애니메이션 출연.
2017년 7월 하야로비 거리예술 '베란다 프로젝트' 설치미술 참여.
2016년 10월 서울 이한열 기념관. '보고 싶은 얼굴 전'
2016년 7월 '노동! 자! 투쟁!' 민중 미술 소장 작품전.
2015년 10월 '신데렐라가 되고픈 재투성이' (박경효 개인전)
2015년 6월 '잠수함 속의 토끼전'
2015년 3월 울산 노동 역사관 개관 1년 기념전.
2015년 6월 '망각에 저항하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전. 안산 예술의 전당.
2014년 11월 '내 안의 DMZ' 경기민예총. 안산 예술의 전당.
2014년 9월 '무빙 트리엔날레' 부산 연안 여객 부두.
2014년 6월 민중미술 2014 '잠수함 속의 토끼' 민주공원.
2014년 6월 '열사에서 친구로' 이한열 기념관.
2013년 9월 'NET-CO' 소통을 위한 그물. 또따또가 후쿠오카 교류전.

수상경력 및 기타 활동

2008년 비룡소 출판사 '황금 도깨비상' 수상.
2015년 부산민예총 '민족예술인상' 수상.
2012년부터 샌드 애니메이션 제작 및 공연.
2017년 작은 도서관 작가 순회 강의 진행.

대표 작품

대표 작품 선정 기준

① 시기별 대표작품
1980년대 학생미술운동시기
1990년대 사회미술운동 초창기
2000년대 부민미협 활동기
2010년 이후 팝아트와의 접목기

② 유형별 대표작품
걸개그림
캔버스화
그림책 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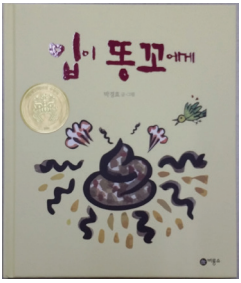
박경효 서성훈, 《백산에 올라》, 캔버스 천에 유채(걸개그림), 40*483cm, 1994.



박경효, 배용관, 서성훈, 《현대노동운동사》, 캔버스 천에 아크릴릭, 240*950cm, 1994.



박경효, 《6월의 탄생》, 걸개에 아크릴릭
230*250cm,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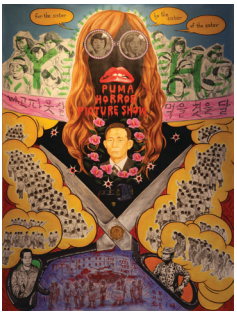
박경효, 《입이 똥꼬에게》
비룡소, 2008.



박경효, 《세월이 흘러도》,
캔버스에 아크릴릭
117*81cm, 2014.



박경효, 《호박나이트》,
호박 등, 컴퓨터 잔해, 숯, 음향 효과, 설치
600*600*350cm
2015.



박경효, 《부마 호러 픽처쇼》,
캔버스 천에 아크릴릭
240*180cm, 2017.



박경효, 《Oh My 후(신)》,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2020.

작가 소개

'박경효'라는 민중미술가로 바로서기

1997년 미술패 '새물결'은 해소되었다. 박경효의 민중미술 연대기는 1985년부터 '새물결'이 해소된 1997년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가 끝나자 그는 그 스스로 '박경효'라는 민중미술가의 이름을 되찾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98년에 부산 롯데화랑에서 첫 개인전 <별은 내 가슴에>를 기획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미술패'라는 소집단에서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했을 뿐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단 첫 개인전의 시작은 그가 이제 한 사람의 민중미술가로 '바로서기'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그는 현재까지 아홉 번의 개인전을 치렀다. 그런데 개인전의 주제와 작품을 살피다 보면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이 엿보인다. 그러니까 첫 개인전부터 제4회 개인전인 <갈매기 보다 나>까지는 그가 민중미술가로서의 고민과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고, 제5회 개인전 <책>부터 이후의 개인전은 부산의 설화, 전설, 신화를 주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중략-

2008년 이후의 활동은 수많은 단체전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다시 '민주독재'로 이어지는 굴곡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독재'는 새로운 형태의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잇는 '독재정치'라고 할 수 있다.
독재는 끝나지 않았고, 민주화 또한 온전하지 않은 시대다. 새로운 민주독재의 시대는 민중미술가들을 여전히 현실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의 수많은 단체전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사를 다시 호명하는 '기억투쟁의 전시들'이다.
그는, 여전히 민중미술가로 살고 있다. 함께 했던 미술패가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의 21세기는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섰던 민중미술가들이 기획전으로 모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많은 민중미술가들과 연대하며 민중미술의 새로운 모색을 펼쳐나가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펴내기도 했다. <입이 똥꼬에게>(2008)로 제14회 비룡소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부산 민예총 '민족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나는 그가 보여준 '부산 설화' 작품들에서 새로운 민중미술의 가능성을 보았다. 또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작업들은 혼성적인 팝아트 경향도 보여주는데, 이러한 실험들은 그가 모색해 온 새로운 미술로서의 가능성이 아닐까 한다.

1차년도 연구자 김종길 선생님의 작가 기본 소개글 <박경효 민중미술연대기> 중에서 발췌